

프로축구 코로나 딛고 대장정 나선다

27일 전북-서울 개막전... K리그1 38R·K리그2 36R 축소 없이 정상체제 복귀... 매경기 유관중 기대 높아

프로축구 K리그가 코로나19 위기 2년 차를 맞아 '리그 축소' 없이 K리그1(1부리그) 38라운드, K리그2(2부리그) 36라운드의 '정상 체제'로 복귀해 팬들과 만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구단들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지난해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중단 없이 완주해낸 경험을 2021년 K리그는 '정상 복귀'를 선택했다.

더불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팀은 수용관중 10%, 1.5단계인 비수도권 팀은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어 2년 만에 '유관중 개막전'도 기대된다.

올해 K리그1은 2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해 챔피언 전북 현대와 '명가 부활'을 선언한

FC서울의 개막전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또 K리그2도 같은 날 창원축구센터에서 지난해 승격 플레이오프(PO)에서 미끄러진 경남FC와 안양FC의 1라운드 맞대결로 '승격 전쟁'의 서막을 연다.

2022년 K리그1은 지난해 우승팀 전북을 필두로 울산 현대, FC서울, 포항 스틸러스, 대구FC, 강원FC, 수원 삼성, 성남FC, 인천 유나이티드, 광주FC, 제주 유나이티드, 수원FC 등 12개 팀이 맞붙는다.

K리그2는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강등된 부산 아이파크와 김천상무를 비롯해 경남, 안양, 부천FC, 안산 그리너스, 전남 드래곤즈, 충남 아산, 대전하나시티즌, 서울 이랜드FC 등

10개 팀이 1부 승격에 도전한다.

▶ '위드 코로나 시대' 리그 정상 복귀...전북의 K리그1 5연패 '도전'

올해 K리그1은 38라운드 체제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27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3일까지 33라운드의 정규라운드를 치른 뒤 파이널A(1~6위팀)와 파이널B(7~12위팀)로 나뉘어 38라운드까지 파이널 라운드를 이어간다.

파이널A에서 우승팀을 결정한다. 파이널B 최하위 팀은 K리그2로 강등되고, 11위팀은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PO) 승자와 1부 잔류를 놓고 승강PO를 치른다.

올해 K리그1의 최고 관심은 전북의 5년 연속 챔피언 등극에 쏠린다.

전북은 울산과 펼친 치열한 '현대 가(家) 우승 싸움'에서 2년 연속 웃음을 지으면서 K리그1 역대 최초 4연패와 역대 최다인 8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 부산, 상주 합류에 K리그2 '역대급 승격 전쟁' 예고

지난해 손에 땀을 쥐는 승격 전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K리그2는 올해에는지난 시즌 K리그1에서 강등된 부산과 상주까지 합류하면서 '역대급 승격 전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승격 PO에서 수원FC에 밀린 경남을 비롯해 이랜드, 대전, 전남을 비롯해 부산과 상주까지 '승격 전쟁'에 참전을 예고하고 있어 시즌 내내 방심할 수 없는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K리그1에서 4위를 차지한 상주는 연고 이전에 따른 예정된 강등이었던 만큼 K리그2 우승 판도의 핵으로 일찌감치 지목을 받고 있다.

36라운드로 치러지는 K리그2의 우승팀은 자동 승격되고, 2위 팀은 3-4위 팀끼리 맞붙는 승격 준PO 승자와 대결해 승강PO 진출 자격을 얻는다.

제주Utd 3월 6일 홈 개막전

월드컵경기장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한판 K리그1 복귀 첫 경기는 3월 1일 성남 원정경기

SQUAD NUMBER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23일 공개된 제주Utd의 등번호.

지난해 K리그1로 승격한 제주유나이티드FC(이하 제주Utd)의 홈 개막전이 오는 3월 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21 K리그1' 개막에 앞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제주Utd 홍보 지원 등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3월 6일 오후 2시 전북현대와의 개막전을 대비해 최적의 잔디 관리는 물론 관중 편의시설, 전광판, 조명시설, 중계시설 등의 최종 점검

했다. 아울러 관중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장 광장을 정비하고 경기장내 관중석에 대한 와이파이도 구축하는 등관중맞이 준비를 끝냈다.

시는 경기 중 하프타임을 활용해 시청정보는 물론 제주Utd 증정품 이벤트도 벌인다. 아울러 제주를 인기지로 한 제주Utd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제주Utd는 도내 유·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3-12월 초중고와 클럽하우스에서 15회에 걸쳐 찾아가는 축구교실을 운영한다. 또 클럽하우스 초청, 슈팅스타 등 홈경기 부대행사를 통해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Utd는 오는 3월 1일 성남FC와의 원정경기를 필두로 K리그1 복귀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최대 관객 수를 5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제주Utd의 선전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근탁기자



UCL 통산 최다 득점 3위 오른 뮌헨 레반도프스키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바이에른 뮌헨(독일) 대 라치오(이탈리아) 경기에서 뮌헨의 로버트 레반도프스키(33)가 득점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 득점으로 그는 UCL 통산 72호 골을 기록하며 역대 UCL 통산 최다 득점 단독 3위에 올랐다.



임성재가 아시아 국제선수로는 두번째로 월드골프챔피언십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 아시안 WGC 챔피언 도전

25일 미 플로리다서 개막 "이번 대회는 컷 탈락 없이 공격적으로 경기 임할 것"

임성재(23)가 아시아 국제 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임성재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개막하는 WGC 워크데이 챔피언십(총상금 1050만 달러)에 출전한다.

그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WGC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이 대회에 우승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GC는 1년에 네 차례 열리는 대회로 총상금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특급 대회로 분류된다.

PGA 투어와 유러피언투어,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아시안투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사인 투어, 호

주 PGA 투어 등 세계 주요 6대 투어가 함께 만든 대회다.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과 함께 4대 메이저 대회 바로 다음 등급에 해당한다.

WGC가 창설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회에서 우승한 아시아 국적의 선수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유일하다.

임성재보다 6살 많은 마쓰야마는 2016년 HSBC 챔피언스와 2017년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등 WGC 대회에서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현재 임성재는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7위로 아시아 국제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마쓰야마는 23위다. 임성재의 WGC 역대 최고 성적은 2019년 HSBC 챔피언스 공동 11위다.

임성재는 "이번 대회는 컷 탈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할 필요가 있다"며 "컷날 좋은 성적을 내면 이후 라운드에서 안전한 경기 운영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대회를 앞둔 각오를 전했다.

여자프로배구 정상 운영 "진행 인원들 코로나 음성"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경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KOVO는 경기 진행에 필요한 심판, 전문위원, 기록원 등 경기운영본부 인원들이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남녀부 선수들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V리그 남자부는 지난 23일부터 2주간 중단됐다. KB손해보험 소속 박진우의 코로나19 확진이 22일 확인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KOVO는 21일 열린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의 경기에 참여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W아이텍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